

남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가동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 선제 대응 시내버스 등 공회전·배출가스 단속 건설공사장 64개소 비산먼지 저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홍보 등 강화

남원시가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 대응하고 대기오염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과 산업, 생활(건강) 등 3대 분야에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을 집중 관리

하고 저감대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수송 분야의 경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시민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즉시 확인하도록 실시간 미세먼지 데이터를 전광판에 공개한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해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화물차, 시내버스, 학원 차 등을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과 운행자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

산업 분야는 대기배출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건설공사장 64개소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운영해 대기 배

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을 상시 점검한다.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감시·점검할 예정이다.

생활 분야에선 시청로~동립로(6km), 보건소~이그린(5km) 구간을 미세먼지 저감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해 도로 노면 청소와 살수 차량을 투입, 도로 청소를 강화한다. 어린이집, 의료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도 실시할 구상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전 분야의 관리에 힘쓰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400년 전통 복원…고창 지주식 김 첫 수확

고창군의 400년 전통 지주식 김이 양식 중단 위기를 넘기고 옮겨울 첫 수확에 들어간다.

고창군은 지난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폐업 보상금 지급으로 사리질 위기에 놓였던 전통 지주식 김 양식이 법적 기반을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창군 어민들은 인근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인근 해역 수온 상승이 예상되자 폐업 보상금을 받고 양식을 포기했다. 하지만 실제로 김 양식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어민들은 전통 양식 복원을 희망하고 나섰다.

고창군은 해양수산부와 논의 끝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고 지난 7월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후 지난 9월 말 고창군은 전북도로부터 지주식 김 한정면허 승인을 받아 김 어장을 다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재개된 고창 전통 지주식 김 어장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고창군 심원면 만들 일대(200ha)에 조성돼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



고창군 심원면 만들 갯벌에서 어민들이 전통 지주식 양식으로 생산한 물김을 수확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관계자는 "김 그물망·물김포대·종자 구매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 김 생산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이만재 정읍시의회 부의장, ESG 우수조례 최우수상

이만재 정읍시의회 부의장이 한국ESG학회 주관한 'ESG 우수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가치와 공공성을 조례에 적극 반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부의장은 그동안 육아 친화 도시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 반려동물 학대 예방 등 생활 밀착형 조례를 꾸준히 발굴하며 지역사회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목표로 마련한 '어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는 도입 이후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긍정적 변화의 기반을 마련

했다는 평가다.

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는 정읍에 건전한 반려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세운 사례로 호평받고 있다.

한국ESG학회는 "지역 현실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의정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만재 정읍시의회 부의장은 "시민의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늘 현장을 살피며 고민해왔다"라며 "앞으로도 ESG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읍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ESG학회는 2025년 정읍시의회 부의장 선정을 기념해 김만재 부의장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고인돌박물관, 내년 국보순회전 연다

개최 기관 선정…내년 하반기 3개월간 청동기 유물 5점 전시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이 '2026년 국보순회전' 개최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국보순회전은 국보급 문화유산을 지역 공립박물관에서 전시하는 사업이다. 누구나 국보와 보물을 일상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내년도 순회전에는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을 포함해 전국 6개 박물관이 최종 선정됐다. 고창군은 내년 하반기 약 3개월 동안 청동기 유물 5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에는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제례용 유물 '청동방울' (국보 146호)도 포함된다. 인물·농기구·경작지 등이 묘사돼 있어 농경과 관련된 제사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농경문청동기' (보물 1823호)도 함께 공개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동기와 고인돌을 대표하는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이 국보순회전에 선정된 것은 큰 성과"라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



지난 2024년 국보순회전 당시 전시된 청동방울.

보·보물이 전시되는 만큼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공공산후조리원 다음달 12일 개원

14일까지 '산후케어센터 다온' 흠피서 접수…16일 공개추첨

전북자치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인 남원시 '산후케어센터 다온'이 내년 1월 12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남원시는 공공산후조리원 흠피서자를 통해 예약을 접수한다며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1월과 2월 출산 예정인 산모의 접수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공개추첨은 16일에 실시된다.

또 3월과 4월 출산 예정인 산모의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5일까지로 공개추첨일은 6일이다.

남원시민뿐 아니라 전북자치도 전체 산모와 지역권자체 산모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요금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꿈나무후원회, 장학사업 20년 '귀감'

학생 11명에 1100만원…순수 민간단체, 기부문화 확산 기여

정읍에서 순수 민간단체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어 화제다.

정읍 꿈나무후원회는 지난 5일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성적 우수학생과 취약계층 학생 등 11명에게 각 100만원씩 11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최초 친목을 위해 구성된 꿈나무후원회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재양성과 '아이들의 미래를 돋는 가장 의미 있는 나눔'으로 모임의 목적을 바꾼 뒤 회원 각각의 회비를 기반으로 꾸준히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꿈나무장학회 최성호 회장은 "장학금은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전하는 응원의 마음"이라며 "회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돋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창고 매매·임대

대지 920평

건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